

광주경총, 이은경 K요들협회장 초청 금요조찬포럼

“또렷한 발음은 정확한 소통·공감의 첫걸음”

“공감은 또렷한 발음과 정확한 의사 전달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3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26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금요조찬포럼에서 이은경 K요들협회장이 ‘요들처럼 살아라’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좌우명인 ‘뻔뻔하게 살면 편 편(FUN FUN)해진다’를 소개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소리뿐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자신감 있는 합창 몸짓도 중요하다”며 “맛있게, 멋있게, 사랑스럽게 소통하면 단순한 공감을 넘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이끄는 리더도 자신의 의사를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즐겁게 살수록 자신감·자존감 높아...힘찬 몸짓 등 강조 판소리·민요 등 창법 닦아...K-요들 세계화 가능성 충분

이 회장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 목동들이 즐겨 부르는 요들(Yodel)의 발성 원리도 소개했다. 그는 “턱을 당기고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뺨이 올라갈수록 높은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코로 충분히 호흡하고 인장을 짧게 유지하면서 치아가 많이 보이도록 발성하면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요들의 음악적 특징을 국악과 비교하며 공통점을 짚었다.

이 회장은 “요들은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알프스 목동들이 산과 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불렀던 노래로, 화려한 기교보다 정직한 발성이 핵심”이라며 “흥성과 두성을 자유롭게 오가며 꺾는 창법은 판소리와 민요의 발성법과 닮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들이 알프스 지역의 민요라면 판소리와 민요, 시조는 한국의 ‘K-요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 민족 특유의 정과 흥이 요들과 만나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해의 공연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2022년 미국 장애인체전 개막공연과 LA 한국문화원, 스위스대사관 공연 등에서 ‘아리랑 요들 메들리’를 선보였는데 외국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며 “우리 노래에는 백제의 장인정신과 고구려의 기마정신, 신라 화랑정신이 담겨 있어 세계인들에게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대표 술인 소주를 사례로 들며 K-요들의 성장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소주는 원래 몽골의 고려 침략 때 유입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마시고 발전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술이 됐다”며 “요들도 한국적 감성과 콘텐츠를 더해 발전시킨다면 새로운 K-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요들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스위스에 역수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는 즉석으로 “하나 둘 셋 넷, 요들레이잇, 우리 모두 행복한 광주경총”이란 요들을 직접 부르며 강의를 마쳤다.

한편 광주경영자총협회 금요조찬포럼 다음 강의는 오는 10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본사 1층 아카데미홀에서 조용현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의 ‘호남의 명문가에서 배우는 기업가 정신과 리더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이은경 K요들협회장이 “또렷한 발음, 공감을 해야 상대방이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본점에서 정일선 은행장과 홍도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 신입 26명 첫발...지역인재 77% 채용

디지털 인재 선발 등 미래금융 경쟁력 강화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최근 본점에서 정일선 은행장과 홍도현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행원 사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사령장을 받은 신입행원 2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직무연수와 6개월간의 수습근무를 마치고 정식 행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신입행원들에게 직접 위장을 담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신입행원 채용에서 전체 인원의 77%를 광주·전남 지역인재로 선발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분야 인재를 별도로 채용하며 미래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신입행원들은 창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영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금융인으로서의 기본 역량과 고객 응대 능력을 키워왔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수습 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오는 광주은행의 정식 행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행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와 열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조직에는 새로운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TP, 베트남과 재생에너지 협력...동남아 공략 박차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ESS 실증 통해 사업화 추진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베트남 람동성 달랏에 위치한 베트남 감자·채소·화훼연구센터(PVFC)에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광주특별자치시 등이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R&D) ‘저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남지역산업진흥원이 관리기관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총괄한다. ‘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 에너지산업 OpenLAB 고도화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실증 인프라를 갖춘 전남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접목하는 것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베트남 람동성 달랏에 위치한 베트남 감자·채소·화훼연구센터에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핵심이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현지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연계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화훼와 채소 재배단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해 AI가 생육환경까지 자동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검증할 계획이다.

국내 실증을 거친 기술을 베트남 현지 환경에 맞춰 교차 실증한 뒤 사업화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해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실증 기술을 하나의 패키지 모델로 해외에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진흥원, 문화자원에 첨단기술 접목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남 광주지역 문화예술자원에 ICT 첨단기술을 접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2026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공유하는 등 사업 수행에 들어갔다. 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수행기업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사업비 집행에 관한 회계교육과 함께

지자체·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콘텐츠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